

## 論文 概要

본 연구는 漢文 文章 分類 기준의 하나인 敍法의 개념을 정립하고 體系를 수립하며 그 특성을 합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漢文에 대한 이해를 提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文章의 深層的 意味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문법적 범주로 규정된 敍法 研究가 필요하며, 선조들이 남긴 전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漢文 敍法 研究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敍法 研究는 用語와 概念의 統一性 부족,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語氣詞에 치우친 연구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본고에서는 II장에서 敍法에 따른 문장 분류를 제시함에 앞서 意味·構造에 따른 분류 설정을 살펴보고 문장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敍法에 따른 문장의 분류에서는 한문도 본래 口語에서 비롯되었음에 착안하여 一般 言語學을 원용함으로써 그 체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문법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敍法의 概念과 下位分類를 설정하였다.

먼저, 한문에서는 문장에 나타나는 주관적 태도가 語氣詞를 통해 실현되므로 敍法의 개념을 ‘文章에서 나타나는 話者の 語氣’라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敍法은 1차와 2차로 구분하는 복수 분류 방식을 통해서 하위분류 하였다. 1차 분류에서는 문장의 기능을 언어의 기능과 관련시켜 4개의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언어의 기능은 1) 話者の 表現, 2) 事物의 敍述, 3) 聽者에의 傳達 세 가지이며 이 중 어느 것의 比重이 크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으로 분류하였다. 사물·사건·사실 등의 서술에 비중을 둔 문장은 평서

문,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에 비중을 두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의문문,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며 화자의 감정 표현에 비중을 둔 문장은 감탄문이다.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제시한 敍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도 각 문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되어 형태론적 구성요소의 의미나 기능이 배제되지 않도록 一般文과 特殊文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平敍文은 敍述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平敍文과 特殊 平敍文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特殊 平敍文은 미래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 하지만 짐작, 추측하는 태도를 보이면 推定 平敍文, 자신에게 행동을 약속하는 평서문은 約束 平敍文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疑問文은 疑問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疑問文과 特殊 疑問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疑問文은 질문 방식에 따라 說明·贊否·選擇 疑問文으로, 特殊 疑問文은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確信 정도에 따라 反語·推測 疑問文으로 분류 하였다.

셋째, 命令文은 命令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命令文과 特殊 命令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命令文은 聽者에 대한 考慮와 行動 遂行與否에 따라 指示·禁止·請願 命令文으로, 特殊 命令文은 形式 差異에 따라 疑問·平敍 命令文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感歎文은 感情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感歎文과 特殊 感歎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感歎文은 感情의 表現 目的에 따라 傳達·獨白 感歎文으로, 特殊 感歎文은 형식 차이에 따라 疑問·應答 感歎文으로 분류하였다.

이 研究는 文章 分類 基準을 敍法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분류 체계를 確立함으로써 漢文 文法의 合理的 樹立에 一助하며 궁극적으로는 漢文 文章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 目 次

## 論文概要

I. 緒 論 .....	1
1. 研究 目的 .....	1
2. 先行 研究 및 研究 方法 .....	2
II. 文章 分類 類型 .....	9
1. 意味上 分類 .....	10
2. 構造上의 分類 .....	12
3. 敘法上의 分類 .....	14
III. 敘法上 文章 分類 .....	20
1. 平敘文 .....	20
1) 一般 平敘文 .....	22
2) 特殊 平敘文 .....	28
① 推定 平敘文 .....	28
② 約束 平敘文 .....	30
2. 疑問文 .....	31
1) 一般 疑問文 .....	32
① 說明 疑問文 .....	33
② 贊否 疑問文 .....	37
③ 選擇 疑問文 .....	38
2) 特殊 疑問文 .....	40

① 反語 疑問文 .....	40
② 推測 疑問文 .....	42
<b>3. 命令文 .....</b>	<b>44</b>
1) 一般 命令文 .....	45
① 指示 命令文 .....	46
② 禁止 命令文 .....	48
③ 請願 命令文 .....	49
2) 特殊 命令文 .....	52
① 疑問 命令文 .....	52
② 平敍 命令文 .....	53
<b>4. 感歎文 .....</b>	<b>55</b>
1) 一般 感歎文 .....	56
① 傳達 感歎文 .....	56
② 獨白 感歎文 .....	58
2) 特殊 感歎文 .....	60
① 疑問 感歎文 .....	60
② 應答 感歎文 .....	62
<b>IV. 結 論 .....</b>	<b>64</b>
<b>參考文獻</b>	
<b>ABSTRACT (英文抄錄)</b>	

# I. 緒 論

## 1. 研究 目的

본고는 漢文 文章 分類 基準의 하나인 敍法의 概念을 정립하고 체계를 수립하며 그 특성을 합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한문에 대한 이해를 提高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문장 속에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심층적인 의도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장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文法的 範疇로 규정한 것이 곧, 敍法이다. 이에 한문에서도 敍法의 研究가 이루어졌을 경우 한문 전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敍法 研究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敍法 研究는 그 體系性이 부족했다. 한문법에 관한 연구가 먼저 시도된 중국에서는 意味 · 構造 · 敍法의 文章 分類 基準이 일관성있게 제시된 점은 있으나 그 연구의 영역이 語氣詞 위주의 형태론적 부분에 한정되었고, 후일 연구가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概念, 用語가 統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들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문장을 나열해 놓아 문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문장 분류의 합리적 체계를 위한 새로운 敍法 研究의 必要性이 절실하다. 國文法에서는 敍法의 重要性이 일찍부터 인식되어 形態 · 統辭論的 分析보다는 화용론에 입각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敍法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漢文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敍法의 개념과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본 研究는 漢文 文章 分類 基準의 하나인 敍法의 概念을 정립하고 체계를 수립하여 漢文 文章의 理解는 물론이고 漢文 文法을 體系的으로 기술하는데 一助하게 될 것이다.

## 2. 先行 研究 및 研究 方法

한문법 연구는 중국에서는 『助字辨略』 등 허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중국어의 현대 문법에 준하여 연구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한문 교과서 편찬 준거 안에 한문법은 국문법에 준한다고 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한문은 중국에서 발원된 언어이므로 문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 또한 중국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한문법은 고대한어어법의 명칭으로 馬建忠<sup>2)</sup>, 黎錦熙<sup>3)</sup>, 王力<sup>4)</sup>, 呂叔湘<sup>5)</sup>, 高明凱<sup>6)</sup> 등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문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문장 분류에 관한 연구도 意味 · 構造 · 語氣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

---

1) 윤석민, 『현대 국어 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pp. 33-37 참조.

2)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898.

3)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24.

4) 王力, 『中國文法理論』, 民昌文化史, 1996.

5)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82.

6) 高明凱, 『漢語語法論』, 商務印書館, 1986.

기서 ‘語氣’는 평서, 의문, 명령, 감탄 등의 구별을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敍法의 개념과 상통한다. 敍法을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劉景農<sup>7)</sup>은 敍述語 種類, 文章 構造, 語氣詞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장을 분류하고 있다. 語氣詞는 전 문장의 語氣를 표시하며 문장의 用途에 따라 陳述文, 疑問文, 祈使文, 感歎文로 분류하였다.

許世瑛<sup>8)</sup>은 문장에서 語氣詞는 驚訝, 讚賞, 慨歎, 希冀, 疑問, 肯定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위치에 따라 句首語氣詞, 句中語氣詞, 句末語氣詞, 獨立語氣詞로 분류하였다.

張志公<sup>9)</sup>은 문장의 용도에 따라 直陳文, 疑問文, 祈使文, 感歎文을 설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한 건의 일에 대한 감정을 알리는 문장’을 直陳文,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문제를 제출하는 문장’을 疑問文, ‘請求 혹은 命令을 제기하는 문장’을 祈使文,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感歎文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楊伯峻<sup>10)</sup>은 語氣詞의 작용을 提示와 停頓, 終結과 肯定, 已然, 限止, 疑問, 感歎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何樂士와 共著한 『古漢語法及其發展』에서는 문장에 표현된 語氣에 따라 陳述文, 疑問文, 祈使文, 感歎文으로 분류하고 있다.

馬忠<sup>11)</sup>은 11개의 품사 중에 문장의 語氣를 나타내는 語氣詞를 포함

7) 劉景農, 『漢文文言語法』(洪氏出版社, 1965), p. 226.

"語氣詞是用來表示全句的語氣的. 就句子用途說, 可分爲陳述句, 疑問句, 祈使句和感歎句, 四種句末尾都加附着相當的語氣詞"

8)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72.

9) 張志公, 앞의 책, p. 39.

"按照這四種用途 句子可以分爲四類 告訴人家一件事情的句子叫作直陳句 向人提問題的句子叫作疑問句 提出請求 或命令的句子叫作祈使句 發抒感情的句子叫作感歎句"

10)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 p. 845.

"依照句子所表現的語氣, 可以分爲陳述, 疑問, 祈使, 感歎四大類"

11) 馬忠, 『古代漢語語法』, 山東教育出版社, 1981.

시키고 있다. 또한 문장을 文章의 構成成分, 短文의 主要成分, 述語가 일으키는 作用, 文章의 語氣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이중 文章의 語氣에 근거한 분류로 진술문, 의문문, 권유명령문, 감탄문 등 4개의 문장 분류를 제시하였다.

寥振佑<sup>12)</sup>는 文言虛詞에서 語氣의 作用을 일으키는 虛詞에서 語氣副詞, 語氣助詞, 語氣詞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조사는 문장의 첫머리나 가운데에 쓰여 語氣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장 끝에 쓰여서 말의 세기나 어기를 강조하고 어기를 완만하게 하는 作用을 하며 서술문, 의문문 등의 문장을 나타내는 語氣詞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黃六平<sup>13)</sup>은 조사는 언어의 情態를 표시하는 말이며 그 중 文頭에 사용하는 조사는 發起, 提引, 文中 조사의 보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며 語首助詞, 語中助詞, 語末助詞로 분류하였다. 語末助詞에서는 陳述, 疑問, 祈使, 感歎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元泳義(1908), 李種麟(1913), 辛在英(1916), 姜邁(1917), 全堦(1930) 등에 의하여 간행된 문법서<sup>14)</sup>들은 대부분 품사론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으로 權重求, 趙鍾業, 李家源 등이 점차 통사론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문장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敍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權重求<sup>15)</sup>, 李家源<sup>16)</sup>, 趙鍾業<sup>17)</sup>, 鄭愚相·金容傑<sup>18)</sup>의 ‘文의 性質’, 崔相

---

12) 寥振佑 편저, 이중한 옮김, 『漢文 文法の 分析的 理解』(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 300.

13) 黃六平, 『漢語語法綱要』, (華正書局有限公司, 1970), p. 190.

14) 김용한은 초기 간행 한문문법서에서 초기 문법서로 元泳義의 『초등작문법』(1908), 李種麟의 『文章體法』(1913), 辛在英의 『漢文義讀自解』(1916), 姜邁의 『漢文法講要』(1917), 永昌書館의 『作文大方』(1921), 全堦의 『漢文教授捷徑』(1930)을 들고 있으며 『歷代韓國文法大系』, 塔出版社, 1986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김용한, 「한문 문법서의 연구 - 초기 간행본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卷17號, 2001.

15) 權重求, 『漢文大綱』(통문관, 1971), p. 22.

16) 李家源, 『漢文新講』(신구문화사, 1978), p. 72.

翼<sup>19)</sup>의 ‘語感’, 金崇浩<sup>20)</sup>의 ‘話者の聽者에 대한 表現 意圖’에 따른 분류 등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이다.

문의 성질이라는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한 연구는 權重求, 李家源, 趙鍾業, 鄭愚相·金容傑 등이 있다. 權重求는 피동형, 사역형, 부정형, 가정형, 한정형, 비교형, 반어형, 의문형, 억양형, 도장형, 비유형 등 11개, 趙鍾業은 수동형, 사역형, 가정형, 비교·비유형, 한정형, 순접·역접형, 의문·반어형, 긍정·부정형 등 8개, 李家源은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 4개, 鄭愚相·金容傑<sup>21)</sup>은 긍정형과 부정형, 비교형, 사역형, 피동형, 반어형, 의문형, 가정형, 금지와 감탄형 등 10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문장을 분류하는 기준이 문의 성질로 같지만 포함되는 문장의 수가 11개, 8개, 4개, 10개로 각기 다르며 문의 성질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曹斗鉉<sup>22)</sup>은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반어문, 금지문, 수동문, 사역문, 비교문, 가상문, 도치문 등 10개의 문장, 李離和<sup>23)</sup>는 평서문, 의문문, 반어문, 부정문, 사역문, 수동문, 금지문, 비교문, 가정문, 도치문 등 10개의 문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敍法 연구는 崔相翼<sup>24)</sup>, 金崇浩<sup>25)</sup> 등에 의하여 시도되었

---

17) 趙鍾業, 『漢文通釋』(형설출판사, 1975), p. 179.

18) 鄭愚相·金容傑, 『漢文 文型 新講』(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 35.

19) 崔相翼, 『漢文解釋講話』(한울, 1997), p. 13.

20) 金崇浩, 「三國遺事의 文章形式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21) 金容傑은 후에 『한문해석방법(교학사, 2003)』에서 평서, 한정, 부정, 금지, 사역, 의동, 피동, 인과, 비유, 비교, 선택, 억양, 누가, 의문, 반어, 승접, 역접, 양보, 추측, 가정, 감탄, 특수 구문의 22개 문장 분류를 제시하였다.

22) 曹斗鉉, 『漢文의 理解』(성지사, 1982), p. 60.

23) 李離和, 『漢文講座』(한길사, 1988), p. 125.

24) 崔相翼, 앞의 책.

25) 金崇浩, 앞의 논문.

다. 崔相翼은 語感을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하면서 평서, 부정, 의문, 반어, 비교, 가정, 명령, 금지, 사역, 피동, 감탄 등으로 기본 문장을 설정하였으나 語感을 느낌, 분위기로 설명하고 있어 용어자체가 모호하고 하나의 문장이 이중 분류되는 문제점을 보였다. 金崇浩는 話者의 聽者에 대한 표현 의도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하여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분류로 진술문은 긍정·부정진술, 의문문은 관정·설명어문, 명령문은 요구·청유·금지명령, 감탄문은 讚美·悲痛·感慨로 제시하였다. 다소 생소한 용어가 보이며 문장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1) 중국에서는 敍法에 상응하는 語氣에 따른 분류에서 直陳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의 4개 문장으로 분류한 부분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하위분류에서는 형태론적 관점에 치중하여 語氣詞의 기능 설명에만 그치고 있으며 2) 우리나라 학자들은 용어와 개념의 통일조차 이루지 못한 초보적인 상태로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문장을 의미에 따라 나열해 놓아 문법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장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시하더라도 합당한 개념의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써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인 도치문이 의미론적 분류 기준을 취하고 있는 문법서에서 하나의 문장 종류로 제시된 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문법 체계를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먼저, 문장의 분류 기준은 敍法으로 설정한다. 문장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법의 체계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며 의사소통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인 문장의 궁극적 기능이 話者의 의

도나 태도 즉, 語氣를 전달하는 것이라 할 때 敍法의 비중은 크며 이에 따른 문장 분류 또한 필요하다.

또한, 일반 언어학을 원용하여 敍法의 개념과 하위분류를 설정한다. 우리 선인들은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의 언어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일종의 개념부호로 받아들였다. 문법이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라면, 한문은 문법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敍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書面語인 한문도 또한 그 근원은 口語인 만큼 일반 언어학의 도움을 얻어 敍法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敍法의 하위분류를 1차적으로는 話者의 語氣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각각 분류된 문장에 대하여 2차적으로 하위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1차 분류는 敍法 자체가 話者의 主觀的 語氣가 문장을 통해 표현된 것이므로 敍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것이며, 2차 분류는 각 문장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여 형태론적 부분인 語氣詞의 의미나 기능이 배재되지 않도록 一般文과 特殊文으로 분리한 것이다. 한문에서 진술·명령·의문·감탄 등의 어감을 표시하며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표점 부호의 역할을 하였던 語氣詞, 疑問詞, 感歎詞 등이 바로 형태적인 부분으로 이는 의미론적인 부분과 서로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을 배재할 경우 합리적인 분류 체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 2차에 걸친 복수 분류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II장에서는 서술어 종류에 따른 의미상의 분류, 문장 구조에 따른 구조상의 분류에 대한 문장 분류 유형을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敍法上의 分類의 경우 敍法의 概念과 體系를 설정하고 하위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설정한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과 1, 2차의 복수 분류 방식에 따른 하위분류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며 각 문장의 예문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논의 하였던 敍法의 개념과 하위분류 체계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후 논의를 마치고 도록 한다.

## II. 文章 分類 類型

한문을 구성하는 漢字 혹은 漢字語에 대한 품사 설정과 분류는 한문법 토대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統辭論에 있어서도 敘述語의 品詞 종류와 漢文의 構造에 관한 분석적 연구가 呂叔湘<sup>26)</sup>, 周遲明<sup>27)</sup>, 楊伯峻<sup>28)</sup>, 黃六平<sup>29)</sup>, 許世瑛<sup>30)</sup>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왔다. 言語는 話者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문에서도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의 분석이 우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등의 외면적인 부분 외에 문장에 포함된 話者의 주관적 태도 즉, 語氣를 파악하여 본래 의도를 이해하는 것 또한 도외시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劉景農<sup>31)</sup>, 李家源<sup>32)</sup>, 張基權<sup>33)</sup>, 金崇浩<sup>34)</sup> 등에 의하여 문장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문 문장의 보편적인 분류 방법은 1) 意味上 分類, 2) 構造上 分類, 3) 敘法上 分類가 있으며 본고에서도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이에 이 장에서는 意味·構造에 따른 문장 분류 유형은 그동안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일치점을 보이는 만큼 학자들의 異見이 있는 부분만을 정리하도록 한다. 敘法上의 분류를

---

26) 呂叔湘, 앞의 책.

27) 周遲明, 『國文比較文法』, 正中書局, 1987.

28) 楊伯峻, 앞의 책.

29) 黃六平, 앞의 책.

30) 許世瑛, 앞의 책.

31) 劉景農, 앞의 책.

32) 李家源, 앞의 책.

33) 張基權, 「漢語語法原論-中國語文法的 新體系 定立을 위하여」, 聖心女子大學 第 18輯, 1985.

34) 金崇浩, 앞의 논문.

논의하기 전 두 분류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한문의 체계와 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는 敍法상의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敍法上の 分類에서는 敍法の 概念, 下位 分類를 설정하도록 한다.

## 1. 意味上 分類

의미상의 분류는 서술어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문장 안에서 서술어는 곧, 문장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 부분에 동사, 명사, 형용사가 모두 위치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서술어 품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이 분류 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어 종류에 따른 분류를 제시한 학자는 呂叔湘<sup>35)</sup>, 王力<sup>36)</sup>, 張志公<sup>37)</sup>, 劉景農<sup>38)</sup>, 許世瑛<sup>39)</sup>, 洪寅杓<sup>40)</sup>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견해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敍事文	描寫文	判斷文	有無文
呂叔湘	○	○	○	○
王力	○	○	○	×
張志公	○	○	○	×
劉景農	○	○	○	×
許世瑛	○	○	○	○
許菱祥	○	○	○	○

표 1 중국문법에서 句는 sentence의 개념과 동일하므로 文으로 통일시키며, 表態 보다는 描寫가 의미상 타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35)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82.

36) 王力, 『中國語法理論』,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84.

37) 張志公, 앞의 책, p. 33.

38) 劉景農, 앞의 책, p. 81.

39)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72), p. 278.

40) 洪寅杓, 『한문문법』, 신아사, 1981.

위의 표에서 보면 敘事文, 描寫文, 判斷文의 경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有無文의 경우는 異見을 보이고 있다. ‘有’와 ‘無’의 경우 의미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어 품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 陳文子有馬十乘. <論語, 公冶長>

진문자는 10승의 말을 가지고 있다.

(2) 其間有青鶴洞. <破閑集>

그 사이에 청학동이 있다.

예문 (1)의 경우 ‘有’가 동사로써 사용되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敘事文이며 예문 (2)의 경우 ‘有’가 無主文에 형용사로 사용되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描寫文이다.

이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따로 有無文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동사로써 사용된 경우는 서사문으로, 형용사로써 사용된 경우는 묘사문에 포함시켜 의미상 분류에 따른 문장의 하위 종류를 敘事文, 描寫文, 判斷文 3개의 문장으로 설정한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한다.

(1) 葉公問孔子於子路. <論語, 述而>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를 물었다.

(2) 天之於民厚矣. <列子, 說府>

하늘은 백성에 대하여 후하다.

(3) 通於天地者, 德也. <莊子, 天地>

천지에 통한 것이 덕이다.

예문 (1)은 서술어에 동사 ‘問’ 이 사용되어 정황이나 행위를 서술하는 敘事文이고 예문 (2)는 서술어에 형용사 ‘厚’ 가 사용되어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묘사하는 描寫文이며 예문 (3)은 서술어에 명사 ‘德’ 이 사용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판단 관계를 나타내며 주어와 서술어가 동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判斷文이다.

## 2. 構造上의 分類

구조상의 분류는 문장의 구조에 따른 분류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하나의 주어[主語部]와 하나의 서술어[述語部]로 구성된 단문과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구성된 복합문이 있다. 문장 구조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單文	複文		
		主從 複合文	竝列 複合文	包有 複合文
呂叔湘 <sup>41)</sup>	○	○	○	×
王力 <sup>42)</sup>	○	○	○	×
楊伯峻 <sup>43)</sup>	○	○	○	×
張志公 <sup>44)</sup>	○	○	○	×
周遲明 <sup>45)</sup>	○	○	○	○
黃大平 <sup>46)</sup>	○	○	○	×
許世英 <sup>47)</sup>	○	○	○	○

표 2 문장의 구조에 관한 분류의 경우에 용어의 일치는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主從句, 偏正句는 주종복합문으로 等立句, 對等句, 聯合式은 병렬 복합문으로 용어를 통일 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허세영의 경우 繁句는 포유복합문으로, 複句는 주종복합문과 병렬복합문으로 이해하여 분류하였다.

41) 呂叔湘, 앞의 책.

42) 王力, 앞의 책.

위의 표에서 보면 보면 단문과 복문으로 문형을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포유문을 분류하는데 異見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유문의 경우 전체 주어와 서술어는 하나이지만 하나의 문장 성분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포유문의 경우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성분을 하나의 성분절로 인식하여 단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포유문을 단문으로 설정하여 문장 구조에 의한 분류는 단문과 복문으로, 복문의 하위분류로 주중복합문과 병렬복합문을 설정한다.

(1) 季氏富於周公. <論語, 先進>

계씨가 주공보다 부유하다.

(2) 此其志不在小. <史記, 項羽本紀>

이는 그 뜻이 작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3) 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孟子, 離婁>

순이 고하지 않고서 장가를 든 것은, 후사가 없기 때문이다.

(4)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論語, 里仁>

군자는 의로움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예문 (1)은 單文, (2)는 주어 ‘此’와 서술절인 ‘其志不在小’로 이루어진 포유문, (3)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주중복합문, (4)

43) 楊伯峻 지음, 윤화중 옮김, 『文言文法』(청년사, 1989), p. 222.

44) 張志公, 앞의 책, p. 51.

45) 周遲明, 앞의 책, p. 51.

46) 黃六平, 『漢語語法綱要』(華正書局有限公司, 1970), p. 79.

47) 許世瑛, 앞의 책, p. 162.

는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병렬복합문이다.

### 3. 敍法上의 分類

선행연구에서 중국학자들은 ‘敍法은 語氣詞를 통해 전 문장의 語氣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곧, 문장의 目的 혹은 用途’라 하며 이에 따른 분류는 陳述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 4개의 문장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나 語氣詞 위주였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敍法을 ‘話者의 聽者에 대한 표현의도’, ‘문장의 어감’으로 설명하였으나 용어와 개념의 통일성 부족, 주관적 판단 개입으로 문법의 일관성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바 있다. 敍法이 話者가 聽者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라면 文語인 한문에는 부적절 한 듯 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그 연구 성과가 미비하지만 한문도 口語에서 비롯한 만큼 일반 언어학을 원용하면 한문의 敍法 체계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언어학이 개별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기다려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언어학은 그 자체로서의 방법과 조직을 가지고서 개별 언어학의 방법과 방침을 지시하는 指針이므로 특수성, 구체성,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 한문도 일반 언어학의 도움을 얻으면 체계적으로 기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언어학의 도움을 얻어 그 체계성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문법 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敍法의 概念와 그 下位分類를 설정해 보도록 한다.

敍法은 국문법에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하위 범주가 학자들 마다 다르다. 명제 내용에 대한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필연성 따위의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법(mood)이라 하고, 그것을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敍法(modality)이라 보기도 하며 modality를 개념적 영역으로 보고 이들 의미 영역의 하위 구분으로서 굴곡적인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mood라 하기도 한다. 혹은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화시 현재 말할이의 입장에서 행한 명제 내용에 대한 파악방법 및 그것에 대한 말할이의 발화, 전달 태도의 문법적 표현을 敍法(modality)이라 하기도 하였다.<sup>48)</sup>

서정수<sup>49)</sup>는 話者が 말할 때 그 내용에 대하여 가지는 話者 자신의 주관적 태도 곧 정신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적 범주가 敍法이라 규정하였다. 話者の 정신적 태도는 주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명제화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認識的 敍法 또는 命題的 敍法과 話者の 바람, 약속, 의도 등 話者 자신의 언어적 행위에서 드러나는 事件的 敍法 또는 行爲的 敍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敍法적 범주는 다시 서술법, 감탄법, 확인법, 추정법의 命題的 敍法과 약속법, 의문법, 허락법, 명령법, 청유법, 의도법, 알림법으로 行爲的 敍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형태적인 특성과 의미, 기능면에서 모두 8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으나 구문적으로 이렇게 많은 敍法 구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 文末 敍法의 문장에서는 형태, 의미론적 특징과 함께 문장의 구문적 성격을 중시하여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분류하였다.

金太相<sup>50)</sup>은 敍法을 형태 통사론적 敍法과 화용론적 敍法으로 二分한다. 여기서 화용론적 敍法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敍法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는 modality를 敍法과 분리하여 樣相으로 번역하고 敍法

48) 김일웅, 「韓國語의 敍法-敍法의 概念과 下位範疇」, 부산대학교 人文論叢 제 41집, 1992.

49) 서정수, 『국어문법연구 I』, 한국 문화사, 1990.

50) 金太相, 「國語 敍法의 概念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을 樣相法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敍法은 양상의 문법화된 개념이며 樣相은 말하는 형태를 결정시켜주는 話者의 심적 태도 전반을 가리키므로 화용론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보았다. 敍法체계를 어말 어미에서 실현되는 양상법으로 설명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 허락법, 약속법, 경계법 등 8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설명, 허락, 약속, 경계를 서술법의 큰 틀로 묶어 설명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김일웅<sup>51)</sup>은 말할이의 의식 속에 있는 추상적인 단계에서 명제 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판단이나 들을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 범주라 정의하였다. 문장은 발화 장면에 따라 발화목적에 가지며 이는 表出과 傳達로 나누어지게 된다. 표출은 자신의 감정, 의지, 희망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感歎文, 전달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내용을 들을이에게 알리거나 들을이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傳達文으로 나누어지며 전달문은 다시 전달의 내용에 따라 平敍文과 要求文으로, 要求文은 다시 命令文과 請誘文으로 분류되어 敍法의 하위분류는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 請誘文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학자들마다 異見을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敍法은 발화한 문장에 나타나는 話者의 주관적 태도를 문법적 범주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분류는 학교 문법의 敍法 체계인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請誘文, 感歎文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문

---

51) 김일웅, 앞의 논문.

의 특성을 반영하여 敍法의 개념과 하위분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敍法을 ‘文章에 나타나는 話者의 語氣’라 정의하기로 한다. 문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의도, 판단 등 주관적 태도가 敍法을 의미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한문에서는 語氣詞를 통해 실현되는 화자의 語氣가 平敍, 疑問, 命令, 感歎 등의 구별을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이므로 이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문법의 경우 선어말 어미와 문말 어미를 구분하여 敍法의 개념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한문은 독립어으로써 어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敍法의 하위분류는 1, 2차에 걸친 복수 분류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1차 분류에서는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 4개의 문장을 설정한다. 敍法의 하위분류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들 분류는 귀납적, 연역적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學校 文法에서 제시하고 있는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請誘文, 感歎文 5개의 문장으로 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命令文과 請誘文은 1) 행위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점, 2) 行爲的 敍法에 속하는 점, 3) 서술어에 동사만을 사용할 수 있는 통사적 제약이 있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므로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한문에서 뚜렷한 형태적 차이점도 찾기 어려우므로 命令文에 請誘文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언어는 文의 집합이므로 언어기능은 동시에 문장 기능을 나타내며 이를 주목할 경우 문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즉, 敍法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각 문장의 개념을 언어의 기능과 관련시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각 문장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장면에서 話者의 느낌 表現, 事物에

대한 敘述, 聽者에의 要求 등의 세 요건<sup>52)</sup>은 문장 속에서도 실현된다. 그 중 어느 하나는 비중 있게 나타나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혼용되어 나타나므로 어디에 비중이 두었느냐가 각 문장의 정의와 문장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話者의 主觀的 感情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話者의 표현 기능에 비중을 둔 것은 感歎文, 話者가 객관적 사물, 현상, 사건 등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사물의 서술에 비중을 둔 것은 平敘文으로 분류할 수 있다. 聽者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疑問文과 命令文이 있으며 對答을 요구하는 문장은 疑問文, 行動을 요구하는 문장은 命令文이다.<sup>53)</sup>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제시한 敍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각 문장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문과 특수문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이것은 언어 장면에 따라 화자가 발화한 목적이 같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반대로 표현 방식은 같더라도 화자가 다른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놀러나가지 않으며, 놀러나가면 반드시 일정한 방향을 알려야한다.)<sup>54)</sup>는 평서문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청자에게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화자의 목적이 나타나므로 명령문에 속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차 분류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4개의 문장을 우선 일반문과 특수문으로 구분하고 한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분류를 할 것이다. 이는 의문사, 감탄사,

52) Karl Buhler(Jena, 1934, pp. 24-33 참조.)는 1) 話者의 표현, 2) 사물의 서술, 3) 聽者에의 전달을 언어의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53) 김민수, 『국어문법론』 (일조각, 2002), p. 35 참조.

54) 『論語, 里仁』

어기사 등의 형태론적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의미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며 각 문장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平敍文은 敍述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平敍文과 特殊 平敍文으로 구분한다. 이 중 特殊 平敍文은 蓋然性 判斷이 介入되어 미래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 하지만 짐작, 추측하는 태도를 보이면 推定 平敍文, 자신에게 행동을 약속하는 평서문은 約束 平敍文으로 분류한다.

둘째, 疑問文은 疑問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疑問文과 特殊 疑問文으로 구분한다. 이 중 話者의 ‘의문’ 의미가 포함된 一般 疑問文은 질문 방식에 따라 說明·贊否·選擇 疑問文으로, 話者의 ‘의문’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特殊 疑問文은 화자가 알고 있는 情報에 대한 確信 정도에 따라 反語·推測 疑問文으로 분류한다.

셋째, 命令文은 命令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命令文과 特殊 命令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命令文은 聽者에 대한 考慮와 行動 遂行與否에 따라 指示·禁止·請願 命令文으로, 特殊 命令文은 形式 差異에 따라 疑問·平敍 命令文으로 분류한다.

넷째, 感歎文은 感情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感歎文과 特殊 感歎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感歎文은 感情의 表現 目的에 따라 傳達·獨白 感歎文으로, 特殊 感歎文은 形式 差異에 따라 疑問·應答 感歎文으로 분류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敍法의 개념과 이에 따른 문장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하여 합당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각 문장의 특징을 합리적으로 서술하여 보도록 한다.

### Ⅲ. 敍法上 文章 分類

#### 1. 平敍文

平敍文은 肯定文, 直陳文, 陳述文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평서문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데 鄭愚相 · 金容傑<sup>55)</sup>이 사용한 ‘긍정문’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부정의 의미를 제외시켜야 하므로 용어의 개념이 협소하고, 金崇浩<sup>56)</sup>, 張志公<sup>57)</sup>, 楊伯峻 · 何樂士<sup>58)</sup>, 陳望道<sup>59)</sup> 등이 사용한 直陳文, 陳述文은 중국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생소한 용어로 우리나라의 한문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문법의 용어는 국문법에 준한다는 한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국문법의 통일 학교 문법의 용어에 따라 ‘平敍文’<sup>60)</sup>으로 사용하겠다.

平敍文은 사물, 사건, 사실 등의 서술에 비중을 둔 문장이다. 話者의 의도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로 전달할 수 있으며 문장 내용에 따라 판단, 한정, 가능, 묘사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平敍文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話者가 인식한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聽者에게 수행을 요구하는 命令文, 疑問文과는 구별되며 話者의

55) 鄭愚相 · 金容傑, 앞의 책, p. 36.

56) 金崇浩, 앞의 논문, p. 36.

57) 張志公, 앞의 책, p. 38.

58) 楊伯峻 · 何樂士, 앞의 책, p. 845.

59) 陳望道, 『文法簡論』(三聯書店香港分店, 1978), p. 97.

60) 남기삼,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감정 표현에 비중을 두는 感歎文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終結 語氣詞 ‘也’, ‘矣’, ‘焉’, ‘耳’ 등을 사용하여 형태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敍法의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한 話者의 인식, 판단, 聽者에 대한 話者의 의도, 요구 등 갖가지 태도가 개입 되는데 平敍文의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가장 최소로 개입된 문장이므로 주어나 聽者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비록 平敍文이라도 실제로는 話者의 주관적 태도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 일이 많게 되어 순수하게 중립적으로 사실, 사건, 사물 등에 대한 객관적 서술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蓋然性의 判斷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평서문이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 태도를 나타냈을 경우 서술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므로 話者의 주관적 태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일반문과 특수문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즉, 話者의 주관적 태도가 최소한으로 개입되어 사물의 서술에 비중을 두는 문장은 一般 平敍文으로, 話者의 蓋然的 판단이 개입되어 미래 시점에서의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은 特殊 平敍文이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마도~일 것이다’ 라는 話者의 개연적 판단이 비중 있게 드러나는 特殊 平敍文은 다시 미래에 대하여 짐작, 추측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推定 平敍文과 聽者에게 자신이 할 행동을 약속하는 約束 平敍文으로 분류하도록 한다.<sup>61)</sup>

---

61) 金敏洙(앞의 책, P. 290)는 평서문을 直說法陳述形과 可能法推定形, 可能法約束形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고는 이를 참조하였다.

## 1) 一般 平敍文

一般 平敍文은 話者가 사물, 사건,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문장이다. 다른 문장에 비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 하며 문법적 제약이 적다. 한문은 서술어에 동사, 형용사, 명사를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敍事文, 描寫文, 判斷文이 된다.

- (1) 其爲人也好善. <孟子, 告子下>  
그 사람됨이 선을 좋아한다.
- (2) 禹之功大矣. <史記, 越王句踐世家>  
우임금의 공은 크다.
- (3) 仁 人心也. <孟子, 告子上>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문 (1)은 동사 ‘好’가 사용된 서사문이고 (2)는 형용사 ‘大’가 사용된 묘사문이며 (3)은 명사 ‘人心’이 사용된 판단문이다.

平敍文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 (1) 公賜之食. <左傳, 隱公, 元年>  
공이 그에게 음식을 내려 주었다.
- (2) 君子不怨天. <孟子, 公孫丑下>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 (3) 臣聞天之所啓, 人不及也. <左傳, 僖公二十三年>  
신이 듣건데 하늘이 (도와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인력으로 미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4) 賢者而後樂此, 不賢者雖有此不樂也. <孟子, 梁惠王上>

어진 사람인 후에 이것을 즐기며, 어질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이것이 있다 해도 즐기지 못한다.

예문 (1)은 긍정문이고 (2)와 (3)은 부정사 ‘不’ 이 사용된 부정문이다. (3)의 경우는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켜 나타낼 목적으로 語氣詞 ‘也’ 를 사용하였다. (4)의 경우 앞의 절은 ‘긍정’ 뒤의 절은 ‘부정’ 의 의미로 연결하여 비교의 방법을 통하여 문장 의미를 강조하였다.

平敍文은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語氣詞를 사용한다. 劉慶農<sup>62)</sup>은 平敍文에 사용되는 語氣詞로 ‘也’ ‘矣’ ‘焉’ ‘耳’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寥振佑<sup>63)</sup>는 ‘也’ ‘已’ ‘矣’ ‘焉’ ‘耳’ ‘爾’ ‘而已’ 를, 崔相翼<sup>64)</sup>은 ‘也’ ‘焉’ ‘矣’ ‘耳’ ‘而已’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語氣詞 ‘也’ ‘矣’ ‘焉’ ‘耳’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平敍文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也’ 와 ‘矣’ 이다. 두 語氣詞는 용법이 완전히 같지 않으며 차이를 보인다. ‘也’ 는 사물의 이치, 판단, 해석 등의 명확한 語氣를 드러내며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면 제시, 정돈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夫孝 德之本也<sup>65)</sup>(무릇 효란 덕의 근본이다)’ 와 같이 명사가 서술어로 사용되었을 경우 뒤에 ‘也’ 를 첨가

62) 劉慶農, 앞의 책, p. 227. “文言常用 ‘也’ ‘矣’ ‘焉’ ‘耳’ 等詞”

63) 寥振佑 편저, 이종한 옮김, 앞의 책.

64) 崔相翼, 앞의 책, p. 15.

65) 『孝經』

하기도 한다. 語氣詞 ‘矣’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필연적으로 일어날 상황, 즉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語氣詞로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語氣詞 ‘也’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語氣詞 ‘也’의 경우이다.

(1) 董狐, 古之良史也. <左傳, 宣公二年>

동호는 옛날의 우수한 사관(史官)이다.

위의 예문은 명사 서술어 ‘良史’ 뒤에 語氣詞 ‘也’를 사용해서 판단의 의미를 돕고 있는 경우이다.

判斷文은 본래 해석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sup>66)</sup> 주어 뒤에 ‘者’가 사용되었을 경우 문장 끝에 ‘也’와 상응 시키는 것이 전형적이다.<sup>67)</sup>

(1)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大學>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2)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退溪全書, 陶山十二曲跋>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위의 예문은 뒤에 있는 句가 앞에 있는 句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문 (1)의 ‘誠其意’, 예문 (2)의 ‘陶山十二曲’ 뒤에 사용된 ‘者’와 문장 끝 ‘也’가 상응된 예이다.

66) 劉景農, 앞의 책, p. 227. “判斷句本來就有解釋的意思”

67) 허세욱, 『한문 통론』(대한교과서, 1989), p. 59.

解釋文 중에서 뒤의 절이 원인을 나타내는 因果文인 경우에도 ‘也’ 를 사용한다.<sup>68)</sup>

- (1) 鄭之從楚，社稷之故也. <左傳，宣公十二年>  
정나라가 초나라를 따름은 사직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 앞의 절은 ‘정나라가 초나라를 따르다’ 는 결과를 나타내고 뒤의 절은 ‘사직때문이다’ 라는 원인을 나타내며 語氣詞 ‘也’ 를 사용하여 종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태를 나타내는 語氣詞 ‘矣’ 는 사물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문장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필연적으로 일어날 상황,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語氣詞로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사용된다.

- (1) 昔天下之綱嘗密矣 然姦僞萌起. <史記，酷吏傳>

옛날에 천하의 법망은 일찍이 치밀하였으나 간사함과 거짓은 짝이 트기 시작했다.

- (2) 吾君已老矣，已昏矣. <穀梁傳，僖公十年>

우리 임금은 이미 늙었고, 이미 노쇠하였다.

위의 예문은 모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다. 예문 (1)은 ‘昔’ 과 같은 시간 부사를 함께 사용하여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예문 (2)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어떤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 올 상황에 대하

---

68) 劉景農, 앞의 책, p. 228. “解釋句中，也有下句是解釋原因的而因果句的‘也’”

여 예상할 때도 語氣詞 ‘矣’ 를 사용한다.

(1) 齊君弱吾君，歸弗來矣。〈左傳，昭公十二年〉

제나라 군주는 우리 군주를 약하게 생각하고, 돌아가 오지 않을 것이다.

(2) 今足下反天性，棄冠帶，欲以區區之越與天子抗衡爲敵國，禍且及身矣。〈史記，陸賈傳〉

지금 그대는 하늘의 이치를 語氣고, 의관과 속대를 버리고 보잘 것 없는 월나라로 천자와 맞서 적국이 되고자 하니, 화가 또한 몸에 미칠 것입니다.

위의 예문 모두 장차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때 사용하는 문장으로 ‘~일 것이다’ 로 풀이된다. 이 경우 話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가 나타나므로 一般 平敍文이 아니라 推定 平敍文에 속하게 된다.

이외에 ‘矣’ 는 가정문에 사용되어 ‘~이라면 ~해야 한다’ 는 가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이 진행되어 가는 연속된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의 중간에 사용되기도 한다.

(1) 如知其非義，斯速已矣。〈孟子，滕文公下〉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속히 그만두어야 한다.

(2) 晉侯在外 十九年矣，而果得晉國。〈左傳，哀公二年〉

진나라 군주는 외국에서 19년을 지내고 결국 진나라를 차지했다.

예문 (1)은 가정을 의미하는 ‘如’를 사용하여 가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2)는 ‘矣’가 문장 중간에 사용되어 연속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焉’은 지시 대명사와 語氣詞로 이루어진 겸사이다. 선진시대에 대다수 사용된 ‘焉’은 대부분 ‘於是’ ‘於之’를 의미하는 겸사로 사용되었으나 그 위치가 항상 문장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점 語氣詞의 성질을 띠게 되어 그 대명사 적인 성질이 희박해지게 되었다.<sup>69)</sup>

(1) 公曰 制嚴邑也, 虢叔死焉 <左傳, 隱公元年>

공이 말하기를 ‘제는 지형이 험악하여 꾀숙(虢叔)이 여기서 죽었다.’라 하였다.

(2) 君以爲易, 其難也將至矣, 君以爲難, 其易也將至焉. <國語, 晉語>

당신이 쉽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장차 이를 것이고, 당신이 어렵다고 여기면 그 쉬움이 장차 이를 것입니다.

예문 (1)은 ‘焉’이 겸사로 사용되어 ‘於是’ ‘於之’을 의미하고 있으나 (2)는 ‘焉’이 순수하게 語氣詞로 사용된 경우이다.

다음으로 ‘耳’는 한정을 나타내는 語氣詞로 ‘~일뿐이다’, ‘~일 따름이다’로 풀이되며 ‘直’ ‘僅’ ‘但’ ‘惟’ ‘不過’ 등의 부사와 호응된다.<sup>70)</sup>

---

69) 허세욱, 앞의 책, p. 56.

70) 劉景農, 앞의 책, p. 234. “‘耳’既然表示限制的語氣, 往往在句子中常有‘直’, ‘僅’, ‘但’, ‘惟’, ‘不過’一類限制詞和它相應”

(1) 子曰 二三子, 偃之言是也, 前言戲之耳. <論語, 陽貨>

공자가 말씀하시길 ‘얘들아 偃[子遊]의 말이 옳다. 방금 전의 말은 농담일 뿐이다.’ 라 하였다.

(2) 然則非自殺之也, 一間耳. <孟子, 盡心下>

그렇다면 스스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일 뿐이다.

(3) 馮先生甚貧, 有一劍耳. <史記, 孟嘗君傳>

풍환(馮驩) 선생은 매우 가난하여, 한 자루의 칼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예문 (1), (2), (3) ‘耳’ 가 語氣詞로 사용되어 ‘일 뿐이다’, ‘따름이다’ 로 풀이되어 모두 제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 特殊 平敍文

一般 平敍文이 話者의 주관적 태도가 최소한으로 개입되어 사물의 서술에 비중을 두는 문장이라면 特殊 平敍文은 어떤 사실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 것이라는 話者의 蓋然的 판단이 개입이 드러나는 문장이다. 話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話者의 짐작, 추측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推定 平敍文과 聽者에게 자신이 할 행동을 약속하는 約束 平敍文이 있다.

### ① 推定 平敍文

推定 平敍文은 話者가 확고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쯤

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짐작, 추측, 예측하여 나타내는 문장이다.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話者 자신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일 것이다’, ‘~인 것 같다’ 로 추정하여 말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개연성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一般 平敍文과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1) 故 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惟此時爲然. <孟子, 公孫丑上>

그러므로 일은 옛사람의 반 만하고, 효과는 반드시 배가 됨은, 오직 지금만이 그러할 것이다.

(2)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 若不相似然. <孟子, 公孫丑上>

진실로 장차 조회를 하시려다가, 왕명을 듣고서 마침내 결행하지 않으셨으니, 의당 저 예와 서로 같지 않을 듯 합니다.

(3) 兩主共幸君, 君貴富益倍矣. <史記, 陸賈傳>

두 군주가 모두 그대를 어여삐 여길 것이니, 그대의 부귀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위의 예문 모두 ‘~일 것이다’ 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추정하는 문장이다. 예문 (1), (2)는 ‘然’ 이 사용되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3)은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는 語氣詞 ‘矣’ 가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話者의 추정은 확실성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말한 推定 敍法 형태만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으므로 부사어나 상황적 의미로 보충되게 마련이다. 특히, ‘必’ 등이 사용되면 매우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1) 聖人復起, 必從吾言矣. <孟子, 公孫丑上>

성인이 다시 일어나셔도, 반드시 내말을 따를 것이다.

(2) 雖大國, 必畏之矣. <孟子, 公孫丑上>

비록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두려워 할 것이다.

예문 (1), (2) 모두 ‘必’ 이 사용되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할 約束 平敍文에서도 ‘必’ 이 사용되므로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야 파악할 수 있다.

## ② 約束 平敍文

約束 平敍文은 話者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문장이다. 즉, 자신이 직접 행동할 것을 聽者에게 약속하는 문장<sup>71)</sup>으로 行爲的 敍法이 드러나므로 命題的 敍法의 특징을 갖는 一般 平敍文과는 차이가 있다. 約束 平敍文은 行爲的 敍法에 속하지만 話者와 행동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말하는 당사자인 話者이므로 聽者의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아 命令文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에 話者의 의도 전달, 행동 수행 요구 등의 聽者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1) 子曰 麻冕禮也, 今也純儉, 吾從家. <論語, 子罕>

공자가 말하기를 ‘베로 만든 면류관이 예이나, 지금은 생사로 만드니 검소하다. 나는 여러 사람을 따르겠다.’ 라 하였다.

---

71) 서정수, 앞의 책, p. 302.

(2) 拜下禮也, 今拜乎上泰也, 雖違家, 吾從下. <論語, 子罕>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위에서 절하니 교만하다. 비록 여러 사람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는 아래에서 절하겠다.

(3)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 使無訟乎. <論語, 顏淵>

공자가 말하기를 ‘송사를 판결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으나,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하겠다.’ 라 하였다.

(4) 子曰 必也, 正名乎. <論語, 顏淵>

공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 라 하였다.

위의 예문 모두 話者인 주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문장이다. 예문 (3), (4)의 경우는 ‘必’ 이 사용되어 ‘반드시 ~ 하겠다’ 는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 疑問文

疑問文은 話者가 聽者에게 사람, 사물, 사건 등에 대하여 의문을 알리는 문장이다. 곧, 話者가 聽者에게 주어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

疑問文은 敍法에서 주요 범주이며 형태적으로나 의미상으로 平敍文 · 命令文 · 感歎文과 차이를 보인다. 의미상으로 聽者에의 전달에 비중을 두어 平敍文과 感歎文과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답변을 요구하여 행동을 요구하는 命令文과 차이를 보인다. 의문사 ‘誰’ ‘孰’ ‘何’ ‘奚’ ‘曷’ ‘惡’ ‘焉’ 과 疑問 語氣詞 ‘乎’ ‘與

(歟)’ ‘邪(耶)’ 등을 사용하여 구분이 형태적으로 뚜렷하여 疑問文은 1) 疑問詞를 사용하는 경우, 2) 疑問 語氣詞를 사용하는 경우, 3) 疑問詞에 疑問 語氣詞를 호응시키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話者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의문문의 형식만을 취하여 전달할 뿐 聽者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의문문의 본래 의도인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의문문은 화자가 발화한 내용이 미지의 사항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의문 표현 방식 또한 차이나게 되므로 문장 자체에 의문의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문과 특수문으로 우선 구분하도록 한다. 즉, 疑問文 중 ‘의문’의 의미가 확실한 문장을 一般 疑問文으로, ‘의문’의 의미가 불확실한 문장을 特殊 疑問文이라 설정하도록 한다.<sup>72)</sup> 話者가 의문을 가지고 聽者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一般 疑問文은 다시 說明, 贊否, 選擇 疑問文으로, 의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疑問文의 원래 목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特殊 疑問文은 反語, 推測 疑問文으로 하위분류하도록 한다.

## 1) 一般 疑問文

一般 疑問文은 話者가 聽者에게 사람, 사물, 사건 등에 관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이에 따른 답변을 聽者에게 요구하는 문장이다. 이때의 답변은 미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응답자의 찬성 혹은 부정의 뜻을 요구할 수도

72) 류현미, 「國語 疑問文 研究」(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 99.

있으며, 제시된 두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질문 속에서 하나의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화자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각각 說明 疑問, 贊否 疑問, 選擇 疑問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학자의 경우를 살펴보다도 劉景農<sup>73)</sup>, 楊伯峻<sup>74)</sup> 등은 一般 疑問文에 비견되는 詢問句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 하위분류를 特指問句, 然否問句, 選擇問句로 나누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一般 疑問文의 하위분류를 說明 疑問文, 贊否 疑問文, 選擇 疑問文으로 설정한다.

## ① 說明 疑問文

說明 疑問文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劉景農<sup>75)</sup>, 楊伯峻<sup>76)</sup>, 馬忠<sup>77)</sup> 등 중국학자들은 이를 特指 疑問文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 유형의 疑問文은 話者가 어떤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聽者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疑問文으로 반드시 의문사가 사용되며 의문사만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문사와 의문어기사가 호응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문사가 說明 疑問文을 구별해 주는 일차적인 변별 표지가 된다. 이것은 贊否 혹은 選擇 疑問과 다른 점으로 의문사가 문장 의미의 많은 비중을

73) 劉景農, 앞의 책, p. 237.

“疑問句是總名, 細分可有幾種情形, 凡有疑即問的, 可叫'詢問句', 雖問非疑的, 可叫'反詰句', 半疑半問的, 可叫, '測度句'”

74) 楊伯峻, 앞의 책, p. 858.

75) 劉景農, 앞의 책, p. 238.

“特指問句, 是指事物中某一項發問, 要求對方作明確的答復”

76) 楊伯峻, 앞의 책, p. 859.

77) 마충, 앞의 책, p. 108.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가 의미의 중점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대방 또한 의문의 중점에 맞추어 대답해야 하며 이때 묻는 대상에 따라 사람·사물·장소·원인 등을 물을 수 있다.

먼저 사람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한다. 사람을 묻는 의문사로 많이 사용되는 대명사는 ‘誰’와 ‘孰’이 있다. ‘誰’의 경우 항상 사람을 묻는 대명사로 사용되며 ‘何人(누구)’ 정도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주어·목적어·관형어로 쓰이며 때로는 직접 서술어로 쓰이기도 한다. ‘孰’의 경우도 ‘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묻는 경우에 대명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誰’와는 달리 가끔 사물을 묻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사람’ ‘어느 것’의 뜻으로 풀이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誰’는 서술어·목적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孰’은 직접 서술어·목적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1) 長沮曰 夫執輿者爲誰? <論語, 微子>

장저가 말하기를 ‘저 수레를 탄 사람은 누구인가?’ 라 하였다.

(2) 吾誰欺? <論語, 子罕>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3) 孰能爲之大? <論語, 先進>

누가 큰 것이 될 수 있겠는가?

(4) 孰可以代之? <左傳, 襄公三年>

누가 그를 대신할 것인가?

의문사 ‘誰’가 예문 (1)은 서술어로 사용되었고 예문 (2)는 목

적어로 사용되었다. 예문 (3)과 (4)의 경우 의문사 ‘孰’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다음은 사물을 묻고 있는 疑問文으로 보통 의문사 ‘何’를 사용하며 가끔 ‘奚’ ‘孰’을 사용하기도 한다.

(1) 何謂也? <論語, 里仁>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2) 孰使予樂居夷而忘故土者? <古文眞寶, 鈞錡潭記>

무엇이 나로 하여금 즐겁게 오랑캐 땅에 살면서 고향을 잊게 하는 것인가?

(3)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論語, 子路>

위나라 임금이 그대를 기다려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예문 (1)은 ‘何’, (2)는 ‘孰’, (3)은 ‘奚’가 사용되어 ‘무엇’이라고 풀이되며 사물을 묻고 있는 경우이다.

장소를 묻는 경우에 語氣詞 ‘焉’ ‘安’ ‘惡’ 등을 사용하며 가끔 ‘何’ ‘奚’도 사용되어 보통 ‘어디’ ‘어느’ 정도로 풀이 할 수 있다. ‘惡’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安’은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焉’은 때로는 사람과 원인을 대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sup>78)</sup>

(1) 且焉置土石? <列子, 湯問>

또 어디에 흙과 돌을 둘 것입니까?

---

78) 寥振佑 편저, 이종한 옮김, 앞의 책, p. 162.

(2) 沛公安在? <史記, 項羽本紀>

패공은 어디에 있는가?

(3) 居惡在? <孟子, 盡心上>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4) 子路宿於石門, 晨門曰奚自? <論語, 憲問>

자로가 석문에서 머물렀는데 새벽에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였다.

(5) 牛何之? <孟子, 梁惠王>

소는 어디로 가는가?

예문 (1)은 ‘焉’, (2)는 ‘安’, (3)은 ‘惡’, (4)는 ‘奚’, (5)는 ‘何’가 사용되어 장소를 묻고 있는 경우이다.

疑問 副詞인 경우 ‘어찌하여’ ‘어떻게’ 정도로 풀이가 되므로 대부분 원인을 묻는다. 疑問 副詞는 ‘何’ ‘盍’ ‘曷’ ‘胡’ ‘奚’ 등이 있으며 개사와 연용되어 ‘何以’ ‘何用’ ‘如之何’ ‘爲何’ ‘曷以’ ‘曷爲’ ‘奚以’ ‘奚爲’ ‘奚用’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曾皙曰 夫子何哂由也? <論語, 先進>

증석이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어찌 유익의 말에 대하여 빙긋이 웃으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2) 許子奚爲不自織? <孟子, 滕文公上>

허자는 왜 스스로 짜지 않는가?

예문 (1)은 의문사 ‘何’와 語氣詞 ‘也’가 상응되었고 (2)는 ‘奚爲’가 연용되어 원인을 묻고 있는 경우이다.

## ② 贊否 疑問文

話者が 묻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제시하고 듣는 이가 거기에 찬성 혹은 부정하는 지를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연구자에 따라 然否疑問文<sup>79)</sup>, 是非疑問文<sup>80)</sup>으로 불리기도 한다. 贊否 疑問文에서는 질문내용에 찬과 부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話者は 응답자가 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게 되며, 그 반면에 응답자는 찬부 사실만 간단히 밝혀도 무방하다.<sup>81)</sup> 이때, 긍정 질문에서 긍정의 대답은 시인을 의미하고 부정 질문에서 긍정의 대답은 부인을 의미하게 된다. 贊否 疑問文에서 의문사는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때 疑問 語氣詞로 보통 ‘乎’가 사용되며 이 외에 ‘與(歟)’와 ‘邪(耶)’가 많이 사용된다.

(1) 子退朝曰 傷人乎? <論語, 鄉黨>

공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말하기를 사람은 다쳤는가? 라 하였다.

(2) 然則舜僞喜者與? <孟子, 萬章上>

그렇다면 순임금은 거짓으로 기뻐한 것인가?

(3) 天之蒼蒼, 其正色邪? <莊子, 逍遙遊>

하늘의 창창함은 그 본래의 색인가?

(4) 文王之囿, 方七十里有諸? <孟子, 梁惠王下>

문왕의 정원이 사방 70리라하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79) 劉景農, 앞의 책, p. 237.

“然否問句, 是提出問題, 要求對方作肯定或否定的答復”

80) 楊伯峻·何樂士, 앞의 책, p. 873.

“是非問句提出的 問題一般只要求對方作 肯定或否定的回答”

81) 서정수, 앞의 책, p. 306.

위 예문의 답변은 모두 예/아니오를 요구하는 贊否 疑問文이다. 예문 (1)은 ‘乎’, (2)는 ‘與’, (3)은 ‘邪’, (4)는 ‘之乎’의 기능을 갖는 ‘諸’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예로부터 찬부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사용되지 않은 채 문장 끝에 語氣詞만 사용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 ③ 選擇 疑問文

둘 혹은 몇 가지의 사항 속에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장이다.<sup>82)</sup> 이 疑問文은 구조상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질문 항이 여러 개 일 수 있으나 실제로 두 개 정도의 질문 사항인 경우가 가장 많다. 選擇 疑問文은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예/아니오’의 답변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贊否 疑問文과는 구별되며 답변에 聽者의 인식보다는 話者의 인식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 說明 疑問文과도 구별된다. 選擇 疑問文은 대부분 語氣詞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孰’ ‘何’ 등의 의문사가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의문사 ‘孰’ ‘何’ 등이 사용된 예이다.

(1) 禮與食孰重? <孟子, 告子下>

예와 식 어느 것이 중한가?

(2) 於斯二者 何先? <論語, 顏淵>

82) 劉景農, 앞의 책, p. 240.

“疊用兩個句讓對方來選擇回答的, 叫 ‘選擇問句’ ”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예문 (1)은 ‘孰’, (2)는 ‘何’가 사용된 경우이다. 의문사가 사용되었지만 설명이 아닌 선택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語氣詞가 사용되어 ‘選擇’을 묻고 있는 경우이다. ‘乎’ ‘與’ ‘諸’가 사용된 예이며 ‘諸’의 경우 ‘之乎’의 기능을 갖는다.

(1) 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寧其生而曳尾于塗中乎？〈莊子，秋水〉

이 거북은 차라리 죽어 뼈를 남겨 귀하게 남기를 바란 것인가? 차라리 살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기를 바란 것인가?

(2) 夫子之於是邦也，必聞其政 求之與？抑與之與？〈論語，學而〉

공자는 이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정치를 들으시니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까?

(3) 有美玉於斯，韞匱而藏諸？求善賈而沽諸？〈論語，子罕〉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궤속에 넣어두고 이것을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좋은 값을 구하여 이것을 파시겠습니까?

예문 (1), (2), (3)과 같이 選擇 疑問文에서는 대부분 語氣詞가 사용된다. (1)은 ‘乎’, (2)는 ‘與’, (3)은 ‘諸’가 사용된 경우이다.

## 2) 特殊 疑問文

特殊 疑問文은 話者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의문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문장으로 聽者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一般 疑問文과 구분된다. 이는 불확실성의 대상이 一般 疑問文은 구체적 정보에 있고 特殊 疑問文은 상대방의 인식에 있기 때문이다. 즉, 特殊 疑問文은 話者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 등의 인식을 聽者가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聽者에게 굳이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다.<sup>83)</sup> 話者가 발화를 함으로써 話者의 인식이나 의도가 충분히 聽者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疑問文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疑問文의 본래 목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疑問文으로 反語 疑問文과 推測 疑問文이 있다. 前者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반어의 의미로 나타내는 문장이며 後者는 자신이 半信半疑하고 있는 내용을 聽者로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추측의 의미로 나타내는 문장이다. 중국 학자들의 경우에도 一般 疑問文을 의미하는 詢問句와 함께 推測句와 反問句를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特殊 疑問文의 하위분류를 反語 疑問文과 推測 疑問文으로 설정한다.

### ① 反語 疑問文

반어 의문문은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강한 서술의 의미

---

83) 류현미, 앞의 논문, p. 99 참조.

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何不歸<sup>84)</sup>(어찌 돌아가지 않는가)’와 같이 동사 앞에 부정사를 사용했을 때는 ‘돌아간다’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며 ‘豈可使人爲之<sup>85)</sup>(어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겠는가?)’와 같이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없다’는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86)</sup> 이 疑問文은 반어 부사를 사용하지 않고 語氣詞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부정사가 사용되지 않고 반어부사와 어기사로 이루어진 긍정적 질문 형태를 보도록 한다.

(1) 巨履小履同價，人豈爲之哉? <孟子，滕文公上>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이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큰 것을 만들겠는가?

(2) 南蒯子仲之憂，其庸可棄乎? <左傳，昭公十三年>

남자(南蒯)와 자중(子仲)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 버려 둘 수 있겠는가?

(3) 惡用是鴟鴞者爲哉? <孟子，滕文公下>

어찌 이 껍껍거리는 것을 쓰란 것인가?

(4) 民欲與之偕亡，雖有臺池鳥獸，豈能獨樂哉? <孟子，梁惠王上>

백성이 그와 더불어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臺池鳥獸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는가?

84) 『古文眞寶，歸去來辭』

85) 『小學』

86) 劉景農, 앞의 책, p. 242.

“反詰句，雖然採用疑問的形式，但作用不在表疑問，而在對原意的否定，因此句中的，動詞前邊有否定詞的，意思是肯定，沒有否定詞的，意思是否定”

예문 (1)은 ‘豈~哉’ , (2)는 ‘庸~乎’ , (3)은 ‘惡~哉’ 가 사용된 경우이다. 반어부사와 語氣詞가 상응된 형태로 모두 긍정적 질문 형식을 통해서 강한 부정의 서술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부정사를 이용한 부정적 질문 형식을 보도록 한다.

(1) 盍各言爾志? <論語, 公冶長>

어찌 각자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않는가?

(2) 不亦樂乎? <論語, 學而>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3) 子儀在位十四年矣, 而謀召君者, 庸非貳乎? <左傳, 莊公十四年>

자의(子儀)는 군주 자리에 14년 동안 있었는데 군주 모시는 일을 도모함이 어찌 두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문 (1)에서 사용된 ‘盍’ 은 ‘何不’ 을 의미하고 (2)는 ‘不亦~乎’ , (3)는 ‘庸非~乎’ 가 사용되어 반어부사와 語氣詞외에 부정사가 사용된 부정적 질문 형식이다. 이 예문은 모두 부정적 질문 형식을 통해서 강한 긍정적 서술을 드러낸다.

## ② 推測 疑問文

推測 疑問文은 話者가 주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추측의 의미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 ‘無乃~乎’ , ‘其~乎’ 등의 관용구 형식으로 나타난

다.

- (1) 先君有共德，而君納諸大惡，無乃不可乎？〈左傳，莊公二十四年〉

선대 군주께서 큰 덕이 있어 군주께서 큰 악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 (2) 師勞力竭，遠主備之，無乃不可乎？〈左傳，僖公三十二年〉

군사가 피로해서 힘이 빠지고 먼데 있는 나라의 鄭君이 대비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3) 後三年，吳其墟乎？〈史記，越王九踐世家〉

삼년 뒤에 오나라는 아마 폐허가 될 것인가?

- (4) 越十年生聚，而十年教訓，二十年之外，吳其爲沼乎？〈左傳，哀公元年〉

월나라가 십년을 백성을 모아 잘살게 하고, 십년동안 잘 지도하면 20년 뒤에 오나라는 아마도 연못이 되어있지 않겠는가?

예문 (1), (2)는 ‘無乃~乎’가 사용되었고 (3), (4)는 ‘其~乎’가 사용되어 추측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추측疑問文은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無乃~乎’, ‘其~乎’ 등의 형식을 사용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推測 疑問文의 경우 感歎文과 유사하여 어떤 문법서에는 推測 疑問文에 사용되는 ‘其~乎’ 등의 형식을 感歎文의 형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其~乎’는 완곡한 의미의 추측을 나타내며 자기의 견해가 분명 있으나 여운을 남기는 語氣로 말하는 特殊 疑問文이므로 感歎文이 아니라 疑問文으로 분류함이 옳다. 만일, ‘其’에 ‘乎’

가 아니라 평서문에 사용되는 語氣詞인 ‘矣’, ‘也’ 혹은 감탄을 나타내는 語氣詞 ‘哉’를 사용하면 感歎文으로 간주 할 수 있다.<sup>87)</sup>

- (1) 其我之謂矣! <左傳, 宣公二年>  
아마도 나를 말하는 것인가!
- (2) 其李將軍之謂也! <史記, 李將軍列傳>  
아마도 이 장군을 이르는 것인가!
- (3) 君其悔是哉! <左傳, 僖公十四年>  
임금님은 아마도 이것을 후회할 것인가!

위의 예문은 완곡의 의미를 가진 感歎文이다. 語氣詞 ‘其’ 자체가 완곡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其’를 사용한 문장은 완곡의 의미를 갖는다. 위 예문처럼 疑問 語氣詞 ‘乎’가 아니라 平敘 語氣詞인 ‘矣’ ‘也’ 혹은 感歎 語氣詞 ‘哉’를 이용하면 疑問文이 아니라 感歎文이 된다.

### 3. 命令文

命令文은 話者가 聽者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命令文은 사물의 서술에 비중을 두는 平敘文, 화자의 감정 표현에 비중을 두는 感歎文,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疑問文과는 달리 聽者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 비중을 두는 문장이다. 또한, ‘~하라’는 지시적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

87) 馬忠, 앞의 책, p. 116.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요구가 일어나므로 1인칭이나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 본질적으로 행동의 주체가 되는 특징이 있다.

命令文은 명령부사, 표경부사, 금지부사, 어기사 등 일반적인 명령문의 구성요소에 따라 命令, 請求, 禁止의 어기를 나타내어 이에 따라 하위분류를 삼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만 가지고 命令文을 온전하게 규정할 수 없다. 話者가 聽者에게 분명히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현 방식이 疑問文이나 平敍文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sup>88)</sup> 이와 같이 명령문이 일반적인 명령문의 구성요소를 취하지 않는 채 청자에 대한 행동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표현 형태와 그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므로 명령 표현 방식에 따라 우선 일반문과 특수문으로 구분한다. 즉, 표현 방식과 그 기능에서 命令文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一般 命令文으로, 표현 방식이 命令文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그 기능이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는 特殊 命令文으로 설정한다. 一般 命令文은 청자에 대한 고려와 행동 수행 여부에 따라 指示, 請願, 禁止 命令文으로, 特殊 命令文은 형식 차이에 따라 疑問, 平敍 命令文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 1) 一般 命令文

一般 命令文은 話者가 聽者에게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그 기능과 표현 방식에서 일반적인 命令文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때 동사만으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명령 부사 ‘尙’ ‘必’ ‘宜’, 표경 부사 ‘請’ ‘幸’ ‘願’, 조동사 혹은 동

88) 박영준, 「현대 국어 命令文 연구-사회언어학적 접근」(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p. 22.

사 ‘可’ ‘愿’ ‘幸’ ‘乞’ ‘祈’, 금지부사 ‘勿’ ‘弗’ ‘毋’ ‘莫’, 語氣詞 ‘其’ ‘惟’ ‘哉’ ‘也’ ‘矣’ ‘來’ ‘者’ ‘兮’ ‘乎’ 등이 사용된 경우가 命令文의 전형적인 표현 형태이다.

일반 명령문은 대체적으로 聽者에 대한 考慮, 聽者에 대한 要求를 기준으로 하며 命令, 請願, 禁止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때 命令은 곧, 指示를 뜻하므로 본고에서는 指示란 용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즉, 指示 命令은 聽者에 대한 考慮 없이 聽者에게 行動 遂行을 要求하고 있으며, 禁止 命令은 聽者에 대한 考慮가 없는 것은 指示命令과 같으나 行動 遂行에 대한 禁止를 要求한다. 또한 請願 命令은 聽者에 대한 考慮를 하면서 聽者에게 行動 遂行을 要求하는 차이점이 있다.

### ① 指示 命令文

指示 命令文은 聽者에게 지시, 요구 따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命令文이다. 聽者에 대한 고려 없이 행동을 요구하는 命令文이므로 매우 강압적인 語氣가 나타난다. 指示 命令文은 대부분 주어가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사가 서술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坐(앉아라)’, ‘來(와라)’ 등 단 한 글자만으로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명령부사와 조동사 등이 사용되어 문장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기도 한다.

먼저 동사가 사용되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도록 한다.

(1) 公曰 告夫三子. <論語, 憲問>

에공이 말하기를 ‘저 삼자에게 말하라.’ 하였다.

(2) 汝徂征. <書經, 大禹謨>

너는 가서 정벌하라.

(3) 咸聽朕命. <書經, 大禹謨>

모두 짐의 명령을 들어라.

예문 (1)은 ‘告’, (2)는 ‘征’의 동사가 사용되어 ‘말하라’, ‘정벌하라’는 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명령부사가 사용되어 강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문장의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명령부사 ‘尙’, ‘必’ 등이 사용된다.

(1) 爾尙輔余一人. <書經, 湯誓>

너희들은 거의 다 나를 도우라!

(2) 爾尙一乃心力. <書經, 大禹謨>

너희들은 거의 다 너희들의 마음과 힘을 합쳐라.

(3) 我死, 女必速行. <左傳, 僖公七年>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속히 (다른 나라로)가라!

(4) 必掩口. <韓非子, 內諸說下>

반드시 입을 꼭 다물어라.

예문 (1), (2)는 ‘尙’, (3), (4)는 ‘必’의 부사가 사용되어 지시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禁止 命令文

禁止 命令文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문장이다. 指示 命令文의 부정적인 형태이므로 聽者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강압적 어감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금지를 요구 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命令文에서 이러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는 반드시 금지사를 사용해야 하며<sup>89)</sup> ‘~말라’ 로 풀이된다. 본고에서 금지사 ‘毋’ ‘勿’ ‘無’ ‘末’ ‘不’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文常曰 卑之, 毋甚高論. <史記, 張釋之傳>

문상(文常)이 말하기를 ‘낮추어, 지나치게 고상한 견해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 (2)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 衛靈公>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 (3) 無從晉師. <左傳, 僖公二十八年>

진나라 사신을 따르지 말라.

- (4) 命膳宰曰 末有原. <禮記, 文王世子>

요리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남은 것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 (5) 我且往見, 夷子不來. <孟子, 滕文公>

내가 또한 가서 볼테니, 이자(夷子)는 오지 말라.

---

89) 呂叔湘은(앞의 책, p. 278.) “否定性的命令爲禁止, 語氣柔和的也可以稱爲勸止. 這類句子裏必然要有否定詞, 卽禁止詞.”, 崔相翼(앞의 책, p. 163) “금지문은 철저히 無, 不, 毋, 勿, 莫등을 동사 앞에 위치시켜 나타낸다”, 劉景農(앞의 책, p. 248.) ‘句中必須有否定詞 毋, 勿, 無 等’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문 (1)은 ‘毋’ , (2)는 ‘勿’ 을 사용한 문장이다. ‘勿’ 의 경우 ‘諸侯欲勿許(제후가 허락하지 않고자 한다)’ 에서와 같이 平敍文의 부정사로 사용될 경우는 ‘不’ 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은 ‘無’ 가 사용된 문장으로 ‘無’ 의 경우 주역이나 장자에서는 ‘无’ 로 쓰기도 하며 ‘毋’ 와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문 (4)는 ‘末’ , 예문 (5)는 ‘不’ 이 사용된 경우 이다.

### ③ 請願 命令文

請願 命令文은 聽者에게 요청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指示, 禁止 命令文과는 달리 聽者에 대한 고려를 하여 강한 명령이 아니라 완곡한 의미의 명령을 나타낸다. 말투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이러한 어감을 표현할 수 있는 語氣詞 ‘其’ ‘唯’ 혹은 표경부사 ‘請’ ‘幸’ ‘願’ 을 사용한다.

먼저 命令文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語氣詞 ‘其’ 의 경우부터 보면 ‘其’ 는 ‘~하십시오’ 로 풀이되는 완곡의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의 중간에 사용된다.<sup>90)</sup> ‘其’ 는 품사 규정에 있어서 부사로 규정할 것인가 語氣詞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異見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其’ 가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를 한정하는 부사로써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語氣詞로 분류하도록 한다. 崔相翼<sup>91)</sup>은 “其는 동사 앞에 놓여 命令, 勸誘, 勸告의 등의 語氣를 나타낸다” , 馬忠<sup>92)</sup>은 “其는 모두 완곡의 語氣로 사용된 語氣詞이

90) 呂叔湘(앞의 책, p. 245.)은 “但文言裏有一個用的祈使語氣詞, 其, 不用在句末, 用在句中” , 劉景農(앞의 책, p. 247.)은 ‘其’用於祈使句時, 也是一個語氣詞...但它却用在句中, 末尾還可別有語氣詞” 고 하였다.

91) 崔相翼, 앞의 책, p. 158.

다” 라 하며 語氣詞로 분류하고 있다.

(1) 子其勉之. <左傳, 成公十六年>

그대는 그 일에 힘쓰십시오.

(2) 毋子其無廢先君之功 <左傳, 隱公三年>

그대는 선군의 공덕을 없애지 마십시오.

예문 (1), (2) 모두 語氣詞 ‘其’ 가 사용되어 강한 명령의 의미보다는 권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2)의 경우는 ‘其’ 가 금지문에 사용된 경우이다. 다음에서 언급할 ‘唯’ 의 경우는 금지문 중에 사용될 수 없으나 其의 경우는 항상 금지문 중에 사용될 수 있다.<sup>93)</sup>

다음으로 ‘唯’ 는 완곡한 語氣를 표현하는 語氣詞로 命令文에서 청유의 의미만 사용되며 禁止文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呂叔湘은 “唯자는 단지 祈請文에만 사용 된다”<sup>94)</sup> 고 하였으며 劉景農은 “禁止文중에 ‘唯’ 를 사용할 수 없다.”<sup>95)</sup> 라 하였다.

(1) 寡君將率諸侯以見於城下, 唯君圖之. <左傳, 襄公八年>

우리 군주는 장차 제후를 거느리고 성 아래에 가서 만날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2) 將悉敝賦以待於儵, 唯執事命之. <左傳 文公十七年>

장차 우리나라 군사를 모아 조(儵)땅에서 기다리려 하니 집사

92) 마충, 앞의 책, p. 122.

93) 劉景農, 앞의 책, p. 249. "其這個詞也常用於禁止句中"

94) 呂叔湘, 앞의 책, p. 282. "唯字只用在祈請句"

95) 劉景農, 앞의 책, p. 249. "禁止句中不能用 '唯'"

(執事)는 그것을 명하십시오.

다음은 表敬副詞가 사용된 예이다. 命令文에 사용된 ‘請’, ‘願’, ‘幸’은 表敬副詞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예의를 나타내고 자신을 겸허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sup>96)</sup> 본고에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표경부사 ‘願’, ‘請’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願夫子輔吾志, 明以教我. <孟子, 梁惠王上>

원컨대 선생께서 나의 뜻을 도와 밝게 가르쳐 주십시오.

(2) 願君留意臣之計. <史記, 淮陰侯傳>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의 계책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3) 君請擇於斯二者. <孟子, 梁惠王下>

군주께서는 청컨대 이 두 가지에서 택하십시오.

(4) 物皆然, 心爲甚, 王請度之. <孟子, 梁惠王上>

사물이 다 그러하거늘 마음이 심하다. 왕께서는 청컨대 그것을 잘 헤아리십시오.

예문 (1)과 (2)는 ‘願’, (3)과 (4)는 ‘請’의 표경 부사가 사용되어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96) 표경부사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楊伯峻(앞의 책)은 “대화 중에 자주 쓰이나 구체적 의미는 없고 다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나타내며, ‘請’과 ‘幸’은 존경과 겸손의 기분만을 나타내는 상투어 이므로 글자에 얽매어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다.”, 寥振佑(앞의 책)는 情態副詞로 분류하고 “양상을 나타내는 부사 ‘敬’ ‘請’ ‘取’ ‘謹’ ‘幸’ ‘惠’ ‘竊’ ‘伏’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경과 겸손을 표시하고 자기에 대하여 비하와 겸양을 나타내는데 쓰여진다.”고 하였다. 崔相翼(앞의 책)도 “‘請’ ‘幸’ ‘願’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자 하는 語氣를 나타내는 表敬副詞”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特殊 命令文

特殊 命令文은 聽者에게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의 기능은 일반 명령과 같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명령부사, 표경부사, 금지부사, 어기사 등일반적인 명령문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一般 命令文과는 달리 疑問, 平敍 등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하여 話者의 聽者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 特殊 命令文은 표현 형식에 따라 의문문의 형태를 나타내는 疑問 命令文과 평서문의 형태를 나타내는 平敍 命令文이 있다.

### ① 疑問 命令文

疑問 命令文은 의문의 형식을 빌려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sup>97)</sup> 反語 疑問文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疑問文은 답변 수행을, 命令文은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으며, 反語 疑問文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한 문장으로 疑問 命令文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전후 문맥을 통한 의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한다.

(1) 不工不商, 何不盜賊? <熱河日記, 許生傳>

장인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면 어찌 도둑질도 못하는가?

---

97) 류현미는 「國語疑問文研究」에서 命令 疑問文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행동수행이 드러나는 문장이 틀림없으므로 본고에서는 命令文의 하위분류인 疑問 命令文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위의 예문은 허생의 부인이 허생에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벌 어오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반어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 내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의미 효과를 노리고 있다.

疑問 命令文은 또한 說明 疑問文, 贊否 疑問文의 형식으로도 命令의 의미를 표현한다.

(1) 汝等欲喫此粥耶? <禦睡新話, 洪生餓死>

너희들은 이 죽을 먹겠니?

(2) 子今爲及第, 能爲國效死否? <於于野談, 朴應男>

그대가 이제 급제를 하였으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지 않겠소?

예문 (1)은 몰락한 양반 홍생원이 양반의 후예라는 신분 의식 때문에 치욕의 생활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때 아이들에게 죽을 먹지 말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贊否 疑問文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문 (2)도 疑問文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平敍 命令文

平敍 命令文은 平敍文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聽者에 대한 행동 요구를 나타낸다. 平敍文은 단순히 사물의 서술에 중점을 둔 문장

으로 話者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平敍 命令文의 경우는 話者의 의도한 행위대로 聽者에게 ‘~해야 한다’ 는 수행 요구를 하고 있다. 이때, 平敍 命令文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제외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나는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 는 문장이 있을 경우 이는 聽者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sup>98)</sup>

(1)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論語, 八佾>

임금은 신하 부리기를 예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한다.

(2)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論語, 里仁>

어진이를 보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

(3)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論語, 學而>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히 하고 믿게 하며, 쓰기를 절도 있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 부리기를 농한기 때 해야 한다.

위의 예문 모두 聽者에게 ‘~해야 한다’ 는 요구를 하고 있다. 平敍文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命令文의 특성인 遂行 要求가 나타나 있다.

---

98) 박영준, 앞의 논문, p. 22.

#### 4. 感歎文

感歎文은 화자가 주어 또는 명제 내용에 대해서 기쁨, 슬픔, 놀람, 비통, 찬미, 감개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화자의 감정 표현에 비중을 둔 문장으로 감탄사, 감탄 어기사 등을 사용하므로 의미와 형태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차이가 뚜렷하다. 국문법에서는 감탄문을 평서문의 하위분류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한문에서는 어미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서문과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感歎文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1) 감탄사, 감탄 어조사, 관용구에 의한 분류, 2) 倒置文와 重疊文의 수사적 표현에 의한 분류<sup>99)</sup>, 3) 讚美·悲痛·感慨 등 감탄의 내용에 의한 분류<sup>100)</sup>가 있었다. 하지만 위의 연구는 형태론 혹은 의미론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한 것으로 감탄문의 특성을 이와 같은 분류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1차 분류를 설정하도록 한다. 話者가 자신의 느낌이나 태도를 곧장 드러내는 感歎文이 있는 반면에 疑問이나 應答의 형식을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感歎文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탄사나 감탄 어기사와 같은 일반적인 감탄문의 구성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차이에 따라 표현되는 감정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감탄사와 감탄 어기사 등 일반적인 감탄문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一般 感歎文으로, 의문사와 응답사 등의 표현 형식을 취하는 경우 特殊 感歎文으로 구분한

99) 劉景農, 앞의 책, p. 249.

"但感歎句不是普通的說法, 因此還有別外的兩種形式, 一種是主謂倒裝, 一種是句子重疊"

100) 金崇浩, 앞의 논문, p. 148.

다.

一般 感歎文은 다시 감정의 표현 목적에 따라 傳達 感歎文과 獨白 感歎文으로, 特殊 感歎文은 表現 形式에 따라 疑問 感歎文과 應答 感歎文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 1) 一般 感歎文

一般 感歎文은 話者의 느낌을 바로 드러내는 문장이다. 感歎 語氣 詞 ‘乎’, ‘哉’, ‘與’, ‘矣’, ‘夫’ 혹은 感歎詞 ‘噫’, ‘嘻’, ‘嗟’, ‘呼’, ‘嗚’, ‘吁’, ‘惡’, ‘嗚呼’, ‘嗟夫’, ‘於呼’, ‘噫嘻’ 를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話者는 어떤 명제·사건·사람 등 외부적 요건에 대한 느낌을 누군가에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느낌을 주변에 상관없이 혼잣말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一般 感歎文은 傳達 感歎文과 獨白 感歎文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傳達 感歎文은 話者가 聽者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말하는 문장을 가리키며 獨白 感歎文이란 話者가 聽者와 무관하게 어떤 느낌을 혼잣말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문장을 지칭한다.<sup>101)</sup>

### ① 傳達 感歎文

전달 감탄문은 話者가 聽者의 발화 내용이나 사건, 대상, 상황에

---

101) 노대규, 『한국어의 감탄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p. 23.

대하여 느끼거나 지각한 것을 聽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으로 반드시 聽者가 존재할 때만 사용된다. 따라서 傳達 感歎文은 話者 입장에서 볼 때에 聽者에 대한 응답이나 聽者에 대한 응답 요구로 사용될 수 있다.<sup>102)</sup>

(1) 가. (點) 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論語, 先進>

點이 말하기를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을 쓴 어른 5-6명과 동자 6-7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돌아오겠습니다.

나. 夫子喟然, 嘆曰 吾與點也! <論語, 先進>

선생이 아!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점(點)과 더불어있어!

(2) 가. 子曰 莫我知也夫! <論語, 憲問>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는이 없구나!

나.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論語, 憲問>

자공이 말하기를 어찌 선생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3) 가. 樊遲從遊於無雩之下 曰 敢問崇德修慝辨惑 <論語, 顏淵>

번지가 공자를 따라서 無雩의 아래에서 놀았는데 ‘감히 덕을 높이며 간특함을 닦으며 의혹을 분별함을 묻겠습니다.’ 하였다

나. 子曰 善哉! 問! <論語, 顏淵>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훌륭하구나! 물음이어.

(4) 가. 然則夫子既聖矣乎? <孟子, 公孫丑>

그렇다면 선생은 성인이십니까?

---

102) 노대규, 앞의 책, p. 32.

나. (孟子) 曰 惡!是何言也! <孟子, 公孫丑>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위의 예문 모두 자신의 감정을 聽者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이다.

예문 (1)은 點(점)이 가슴이 悠然하여 곧바로 천지만물의 묘함이 은연 중 말 밖에 나타나 앞서 세 사람의 지엽적 정사와 견주어 보았을 때 그 기상이 깊으니 공자가 찬미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예문 (2)는 공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애석하는 감정을 자로에게 전달하며 질문을 유발하고 있다. 예문 (3)는 번지의 질문에 공자가 그 자신을 위한 물음을 좋게 여기어 찬미하고 있다. 예문 (4)은 感歎文의 형식을 통해서 맹자는 질책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獨白 感歎文

독백 감탄문은 話者가 어떤 사건, 대상, 상태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로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독백 感歎文은 聽者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話者가 聽者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황, 바꿔 말하면 聽者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sup>103)</sup>

(1) 顏淵死 子曰 噫! 天喪予! 天喪予! <論語, 先進>

안연이 죽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구

---

103) 노대규, 앞의 책, p. 35.

나!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2) 樊遲出 子曰 小人哉, 樊須也 <論語, 子路>

번지가 나가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소인이구나! 번수여.

(3) 子謂子賤 君子哉, 若人 <論語, 公冶長>

공자가 자천을 일러 말하기를 군자답구나! 이 사람이여.

(4)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論語, 子罕>

공자가 냇가에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5) 飽食終日, 無所用心, 難矣哉. <論語, 陽貨>

종일 토록 배부르게 먹고 마음 쓰는 바가 없다면 어렵지 않은가!

(6) 使乎使乎 <論語, 憲問>

(훌륭한)심부름꾼이구나! (훌륭한)심부름꾼이구나!

위의 예문 모두 聽者가 없거나 혹은 聽者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은 채 독백의 형식으로 감탄을 표현한 경우이다.

예문 (1)은 안연이 죽어 道가 전해지지 못하자 하늘이 자신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이 애통해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2)는 번지가 성인의 문하에 있으면서 농사짓는 법과 채소 심는 방법을 물으니 번지가 나간 후 그의 잘못을 말한 것이다. 예문 (3)은 자천이 어진이를 좋아하고 훌륭한 벼를 취하여 德을 이룬 사람으로 공자가 그의 어짙을 찬탄한 것이다. 예문 (4)는 자연이 끝없이 운행함을 본받아 학문에 전진하여 그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문 (5)는 마음 쓰는 곳이 항상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문 (6)은 使者의 말에 의해 主人의 훌륭함이 더욱 드러났으니 君子

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 공자가 찬미하고 있는 문장이다.

## 2) 特殊 感歎文

特殊 感歎文은 話者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의문, 응답의 형식을 취하는 문장으로 감탄사, 감탄 어기사를 통해 話者의 느낌을 표현하는 一般 感歎文과 차이가 있다. 特殊 疑問文은 疑問文의 형식을 차용한 疑問 感歎文과 應答詞를 이용하여 물음에 대한 수락 혹은 거절의 감정을 나타내는 應答 感歎文이 있다.

### ① 疑問 感歎文

疑問 感歎文은 의문의 형식을 통하여 話者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다. 反語 疑問文과 형식상 구분이 어려우므로 전후 문맥에 따라 話者의 강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으면 反語 疑問文으로, 話者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疑問 感歎文으로 구분한다. 또한 反語 疑問文의 경우 부정의문은 강한 긍정의 의미를, 긍정 의문의 경우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疑問 感歎文의 경우는 단지 話者의 느낌을 표현한다.

程湘清<sup>104)</sup>은 정도 부사 ‘誠’ ‘何’ ‘何其’ ‘一何’ ‘若是’를 感歎文의 주요 造句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楚永安<sup>105)</sup>은 감탄구의 형

---

104) 程湘清, 『實用古代漢語』(북경출판사, 1991), p. 149.

식상 특징으로 정도부사 ‘何’ ‘何其’ ‘一何’ 등을 언급하였다. 崔相翼<sup>106</sup>)은 감탄의 고정구식이라 하여 ‘何+주어+之+也(邪)’ ‘주어+何(何其, 一何, 壹何)+형용사 술어+也’ ‘주어+何+명사+之+술어+也’ 로 상세히 구분하여 놓았고 金崇浩<sup>107</sup>)도 “話者 자신의 의도 또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의문형식을 사용한다” 고 설명하며 의문 형식 차용을 다루고 있다.

(1) 何德之衰 <論語, 微子>

어찌 덕이 쇠했단 말인가!

(2) 何追者之衆 <列子, 說符>

어찌 쫓는 자가 많은가!

(3) 雖有君命, 何其速也. <左傳, 僖公二十四年>

비록 군주의 명이 있더라도 어찌 빨리 죽이려 하는가!

(4) 是何楚人之多也. <史記, 項羽本紀>

이 어찌 초나라 사람이 많은가!

(5) 君其修德 而固宗子 何城如之 <左傳, 僖公五年>

군자가 그 덕을 닦고 종자의 지위를 굳힌다면 어찌 성이 그와 같겠는가!

(6) 何許子之不憚煩! <孟子, 滕文公>

어찌 허자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7) 鳳兮鳳兮, 何如德之衰也. <莊子, 人間世>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약해졌는가!

105) 楚永安, 『古漢語表達例話』(中國青年出版社, 1994), p. 163.

106) 崔相翼, 앞의 책, p. 244.

107) 金崇浩, 앞의 논문, p. 163.

위의 예문 모두 疑問文의 형식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한 경우이다. 反語 疑問文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話者의 강한 확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話者의 감정적 어감이 느껴지므로 感歎文으로 분류함이 옳다.

## ② 應答 感歎文

應答 感歎文은 응답과 관련된 수긍과 찬반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중국 학자들<sup>108)</sup>은 감탄사를 사람의 감정이 분출될 때 나오는 소리로 크게 응답사와 감탄사를 구분하고 있다. 감탄사가 감탄을 나타낼 때 놀라움, 찬사, 비통과 노여움 등 인간의喜怒哀樂과 관련된 감정을 표시한다면 응답사는 대인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응답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그 형태 또한 감탄사는 ‘噫’ ‘嘻’ ‘嗟’ ‘呼’ ‘咄’ ‘吁’ ‘惡’ ‘嗟呼’ ‘嗟夫’ ‘於呼’ ‘噫嘻’ 이 사용되는 반면 응답사는 ‘唯’ 와 ‘諾’ 으로 표현되어 그 차이가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소극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응답사 또한 감정을 나타내므로 感歎文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 (1) 가.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공자가 말하기를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 하였다.

나. 曾子曰 唯 <論語, 里人>

---

108) 劉景農, 앞의 책, p. 77.

증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2) 가. 秦王曰 先生何以幸告寡人?

진왕이 말하기를 ‘선생은 무엇 때문에 과인에게 알리고자  
합니까?’ 하였다.

나. 范雎曰 唯, 唯 <史記, 范雎蔡澤傳>

범저가 말하기를 ‘예, 예’ 라 하였다.

(3) 가. 丹所報, 先生所言者, 國之大事也. 願先生勿泄也.

제가 말한 바와 선생이 말한 바는 국가의 큰일입니다. 선생  
께서는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 田光俛首而笑 曰 諾 <史記, 刺客傳>

전광이 머리를 수그리며 웃으며 말하기를 ‘예’ 하였다.

(4) 가. (陽貨)曰 <생략> 日月逝矣, 歲不我與

양화가 말하기를 ‘세월은 가니, 세월은 나와 더불어 지 않는  
구나’ 하였다.

나. 孔子曰 諾, 吾將仕矣 <論語, 陽貨>

공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나는 장차 벼슬할 것이다.’ 하  
였다.

위의 예문 모두 질문에 대한 수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話者  
의 질문에 대한 聽者의 소극적 감정 표현을 나타내므로 應答 感歎文  
에 속한다.

## IV. 結 論

지금까지 敍法을 中心으로 한 文章 分類를 살펴보았다. 선조들이 남긴 한문 전적의 심층적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漢文 敍法 研究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중국과 우리나라 연구는 어 기사에 치우친 연구, 용어와 개념의 통일성 부족,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문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드러내어 새로운 敍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漢文은 본래 口語였음에 근거를 두고 일반 언어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敍法의 概念과 體系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敍法의 概念은 문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어기라 정의하였다. 敍法은 문장에 나타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말하는데 한문이 語氣詞를 통해 문장 전체의 어기를 나타냄을 고려한 것이다.

敍法의 下位分類는 1차와 2차로 구분하는 복수 분류방식을 취하였다. 1차 분류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4개의 문장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문법의 선행연구가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5개의 문장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한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령문에 청유문을 포함시켰다. 각 문장의 정의는 언어의 기능과 관련 시켜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平敍文-事物의 敍述에 비중을 두면서 話者가 객관적 사물, 현상, 사건 등을 서술하는 文章.

둘째, 疑問文-聽者에의 傳達에 비중을 두면서 對答을 요구하는 文章.

셋째, 命令文-聽者에의 傳達에 비중을 두면서 行動을 요구하는 文章

넷째, 感歎文-話者의 表現 機能에 비중을 두면서 話者의 主觀的 感情을 표현하는 文章.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제시한 敍法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각 문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一般文과 特殊文으로 분리하였으며 형태론적 부분 또한 배제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平敍文은 敍述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平敍文과 特殊 平敍文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特殊 平敍文은 蓋然性 判斷이 介入되어 미래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 하지만 짐작, 추측하는 태도를 보이면 推定 平敍文, 자신에게 행동을 약속하는 평서문은 約束 平敍文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疑問文은 疑問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疑問文과 特殊 疑問文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話者의 ‘의문’ 의미가 포함된 一般 疑問文은 질문 방식에 따라 說明·贊否·選擇 疑問文으로, 話者의 ‘의문’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特殊 疑問文은 화자가 알고 있는 情報에 대한 確信 정도에 따라 反語·推測 疑問文으로 분류 하였다.

셋째, 命令文은 命令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命令文과 特殊 命令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命令文은 聽者에 대한 考慮와 行動 遂行與否에 따라 指示·禁止·請願 命令文으로, 特殊 命令文은 形式 差異에 따라 疑問·平敍 命令文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感歎文은 感情 表現 方式에 따라 一般 感歎文과 特殊 感歎文으로 구분하였다. 一般 感歎文은 感情의 表現 目的에 따라 傳達·獨白 感歎文으로, 特殊 感歎文은 형식 차이에 따라 疑問·應答 感歎文으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漢文 敍法의 概念과 體系를 정립하고 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한문 문장의 특성에 맞는 하위분류를 제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漢文 文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敍法에 대한 研究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漢文 敍法의 特性을 더욱 철저히 糾明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一. 論文

- 金崇浩, 「三國遺事의 文章 型式 研究」,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9.
- , 「漢文 文型에 대한 研究-文章의 기능을 중심으로」, 계명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金容漢, 「初期 刊行 漢文文法書에 대하여(1)」, 嶠南漢文學會 第3輯, 1990.
- 金日煥, 「漢文의 文型과 構成要素에 관한 考察」, 교육연구 제 4집, 1987.
- 金太相, 「국어 敍法の 개념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대기, 「국어 문법 교육의 화용론적 응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용한, 「한문 문법서의 연구 -초기 간행본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卷17號, 2001.
- 김일웅, 「한국어의 敍法-敍法の 개념과 하위범주」, 부산대학교 人文論叢 第41輯, 1992.
- 김태연, 「漢文 文形에 대한 一考察 - 고등학교 학교 문법의 文形 分類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류현미, 「국어 疑問文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박선자, 「한국어 敍法 연구」, 釜山大學校 人文論叢 第41輯, 1992.
- 박영준, 「현대 국어 命令文 연구-사회언어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박유리, 「漢文 · 文章形式考」, 동아대학교 東亞論叢 第25輯, 1988.
- 梁光錫, 「漢文文法論-品詞 및 文型分類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유수현, 「漢文 基本 文型 設定을 위한 研究-중학교 교육과정 중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柳勝國, 「現代國語의 文型에 관한 研究-文章의 形式構造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정, 「敍法에 관하여」, 한글 卷 163號, 1979.
- 장경희, 「현대 국어의 양태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張基權, 「漢語語法原論-中國語文法の 新體系 定立을 위하여」, 聖心女子大學 第18輯, 1985.
- 鄭璿朱, 「한국어 감탄 표현의 유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영수, 「漢文 疑問文 研究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2000.
- 崔鐘奎, 「漢文文法 統一을 위한 一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許璧, 「古代 漢語의 副詞 研究」, 東方學志 卷 96號, 1997.

## 二. 著書

- 權重求, 『漢文大綱』, 통문관, 1971.
-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2002.
- 김용걸,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3.
-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대학사, 2001.
- 노대규, 『한국어의 감탄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898
- 馬忠, 『古代漢語語法』, 산동교육출판사, 1981.
- 文璇奎, 『漢文法大綱』, 범학사, 1980.
- 박지홍 · 박유리, 『해석을 위한 한문 입문』, 과학사, 1990.
- 서정수, 『국어문법 연구 I, II』, 1985.
- 梁光錫, 『漢文文法論』, 관동출판사, 1995.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法及其書發展』, 語文出版社, 1992.
- 王力, 『중국어문법이론』, 민중문화사, 1996.
- 廖振佑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 劉景農, 『漢文文言語法』, 洪氏出版社, 1965.
-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 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 李家源, 『漢文新講』, 신구문화사, 1978.
- 李離和, 『漢文講座』, 한길사, 1988.
- 장윤희,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2002.
- 張志公, 『漢語語法常識』,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53.
- 程湘清, 『실용고대한어』, 북경출판사, 1991.
- 鄭愚相·金容傑, 『漢文 文型 新講』, 성신여자대학출판부, 1981.
- 曹斗鉉, 『漢文의 理解』, 성지사, 1982.
- 趙鍾業, 『漢文通釋』, 형실출판사, 1975.
- 周遲明, 『國文比較文法』, 正中書局, 1987.
- 陳望道, 『文法簡論』, 三聯書店香港分店, 1978.
- 楚永安, 『古漢語表達例話』, 中國青年出版社, 1994.
- 崔相翼, 『漢文解釋講話』, 한울, 1997.
- , 『漢文解釋法研究』,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 許世瑛, 『中國文法講話』, 臺灣商務印書館發行, 1972.
- 허세욱, 『漢文通論』, 대한교과서, 1989.
- 洪寅杓, 『漢文文法』, 신아사, 1981.
- 黃六平, 『漢語語法綱要』, 華正書局有限公司, 1970.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Sentences – Focusing on Mood–

By Lee, Sung-Hwa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system of mood, one of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in Chinese sentences and to raise the understanding on Chinese writing by describing its characteristics in a rational manner.

It was necessary to study mood that considered the sentence as one of the grammatical categories so as to grasp the in-depth meaning and it was essential to investigate mood in Chinese writing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accomplishments of the ancestors. Nevertheless, the study on mood has had some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unified terminology and concept, the subjective judgment of researchers and the study limited to Eogisa (語氣詞).

Therefore, in Chapter II, this study helped one understand the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mood by means of re-investigating the establishment of classification corresponding to meaning & structure suggested in the preliminary study. Then, in terms of the classification of mood, this study set up the foundation of its systematization and established the concept and sub-classification of mood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grammar of Chinese writing, by

quoting standard linguistics while considering that Chinese writing was derived originally from colloquial language.

First of all, the subjective attitudes appeared in Chinese sentences were shown through Eogisa(語氣詞); accordingly, the concept of mood was defined as 'speaker's Eogi (語氣) appeared in sentences.'

Then, mood was sub-categorized through the multiple classification method that had the first and second. In the first classification, the functions of sentence were divided into four sentences with regards to those of language. The functions of language were 1) speaker's expression, 2) statement on objects and 3) giving a message to the listener and the sentences could be classified a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exclamatory sentences according to which one was more emphasized. The declarative sentence focused on the statement of object, accident and fact and the interrogative sentence demanded the answer from listeners while focusing on giving a message to the listener. Meanwhile, the command sentence required a certain action from listeners and the exclamatory sentence emphasized speaker's emotional expressions.

In the second classification, the sentence was classified as standard sentence and non-standard sentence so as not to exclud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ogisa by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entence.

First, the declarative sentence was divided into standard and non-standard declarative sentence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probability judgment. Of these, non-standard declarative sentence expressed speaker's uncertain attitudes towards future. However, if speaker showed an attitude of guess and supposition, it was classified as a declarative sentence representing guess and it was classified as a

declarative sentence representing promise if speaker promised one's action to him/herself.

Secondly, the interrogative sentence was divided into standard and non-standard interrogative sentence according to whether the meaning of 'interrogation' was included. Furthermore, standard interrogative sentence was classified into explanatory, pro & con and alternative interrogative sentences in accordance with the question methods and non-standard interrogative sentence was classified into irony and suppositive interrogative sentence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confirmation for the information speakers knew.

Thirdly, imperative sentence was divided into standard imperative sentence and non-standard imperative sentence according to the methods of commanding expression. Standard imperative sentence was sub-categorized into the imperative sentence representing the indication, prohibition and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of action performance and listener's condition, while non-standard imperative sentence was divided into interrogative and declarative imperative sentence according to the forms.

Fourthly, exclamatory sentence was divided into standard and non-standard exclamatory sentence according to the methods of emotional expressions. Standard exclamatory sentence expressed message and monologu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xclamation, while non-standard exclamatory sentence was classified into interrogative and responsive exclamatory sentences according to the form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rational establishment of the grammar of Chinese writing based on the mood as the standard of sentence classification and it would eventually help one to understand Chinese writing.